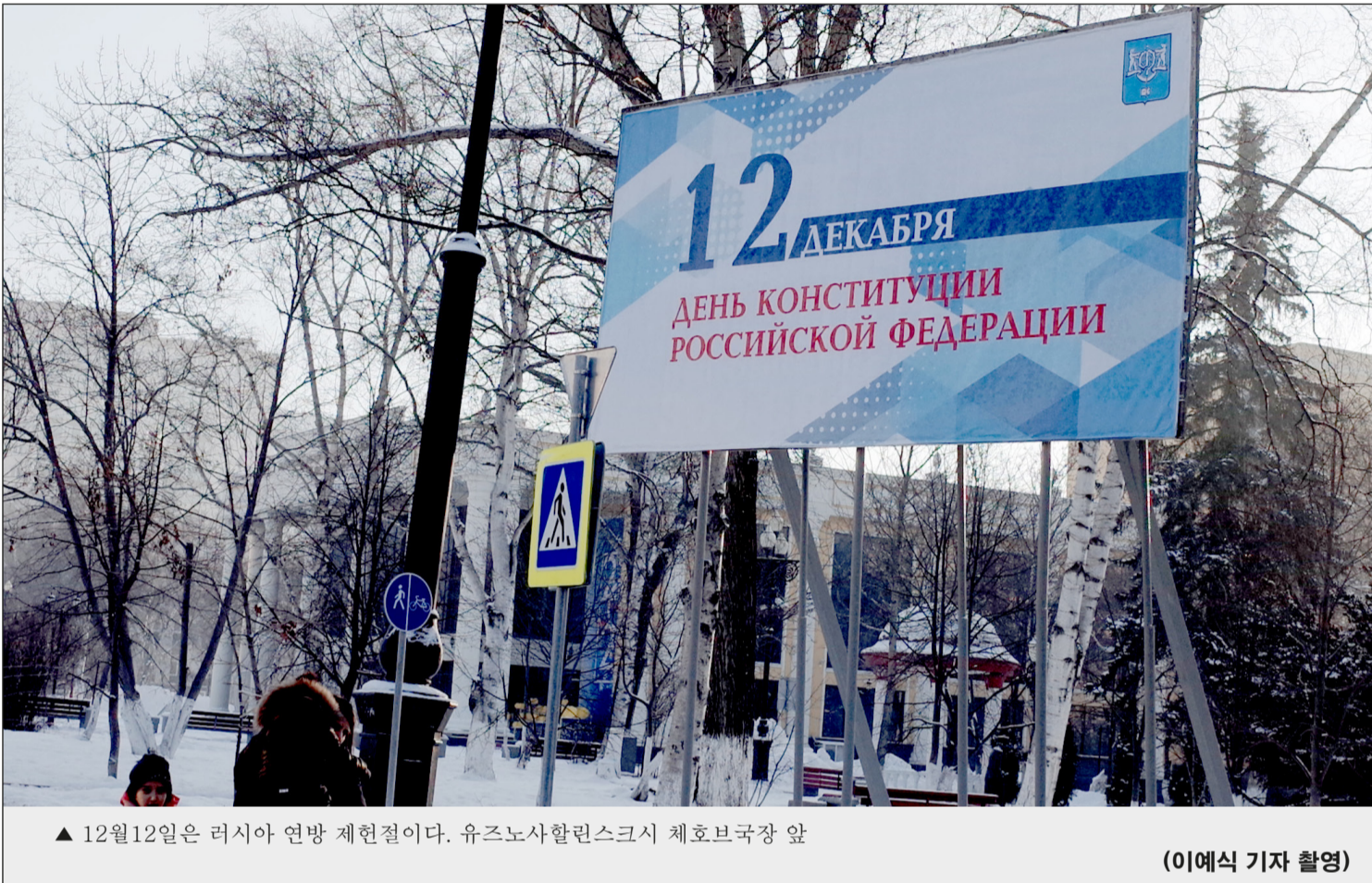


<p>사할린주 사회정치신문</p> <hr/> <p>Общественно- политическая газет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div style="border: 1px solid black; padding: 5px;"> <h1 style="margin: 0;">새고려신문</h1> <p style="margin: 0;">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div>	<p>2020년 12월 11일 (금) -- (윤력 10월 27일) -- Пятница 11 декабря 2020г. № 48 (116915) 1949년 6월 1일 창간 ----- Цена свободная</p>
--	---	---



▲ 12월12일은 러시아 연방 제헌절이다.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체호브국장 앞

(이예식 기자 촬영)

단신

사할린, '조국 영웅의 날'을 위한 행사 개최

조국의 군영웅의 날에 동부 군사관구 군부대 장병들이 유즈노사할린스크 영광의 광장에서 소비에트 장병들을 기리는 기념 성화에 꽃과 화환을 헌화했다.

기념식에 동부군관구 군대표와 참전 용사, 유즈노사할린스크 수비대 장병과 사관생도들이 참석했다.

'라두가(무지개)'문화회관에서 기념식 거행 후 소비에트 영웅, 러시아 연방 영웅들이란 칭호를 수여하게 된 역사에 대해 이야기하는 '용맹의 교훈'이 진행되었다.

사할린주 정부, 12월 31일을 휴일로 할 것을 권고

오는 12월31일을 휴일로 할 것을 사할린주 정부가 고용주들에게 권고했다.

미하일 미슈스틴 러시아 연방 총리는 2021년21월31을 휴무일 제정에 서명했다. 올해는 예외로 평일이 된다.이에 사할린주 정부는 지역적 차원에서 고용주들에게 이날을 휴일로 할 것을 권고했다.

따라서 오는 12월 31일을 휴일로 하고 대신 12월26일에 근무할 것을 권고했다.

사할린주, 주요 율카 점화식

12월 12일(토) 주정부 청사 앞마당에서 사할린 주요 율카(성탄 트리) 점화식이 진행된다.

행사는 18시 모스크바 아티스트들의 공연으로 시작하여 19시 30분에는 율카 트리 점화가 있을 예정이다. 행사에 참가자들은 꼭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12월 13일, 주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 집회 진행

12월 13일(일) 12시부터 14시까지 유즈노사할린스크시 포베다 광장에서 주정부에 대한 신뢰 상실에 대한 집회가 소집된다. 이 집회 주최 측은 <사할린 메카니크 콜론나 68>건설회사의 이니셔티브그룹이다. 현재 사할린 주민 중 주정부 정책에 대한 불만이 많다.

유즈노사할린스크, 버스 요금 2루블리 인상

유즈노사할린스크시는 극동지역에서 버스 요금이 가장 낮은 곳이기도 하다. 1월 1일부터 지역 중심에 시내버스 요금이 22 루블리에서 24루블리로 인상되고, 시외 노선의 경우 킬로미터당 2.1루블리에서 2.3 루블리로 인상된다. 이에 따라, 사회교통카드 이용을 위한 월 총액은 495루블리에서 540루블리로 증가된다.

유즈노사할린스크는 이전과 같이 도심지역에서 별도의 승객으로 분류된 70세 이상의 시민과 지방 일반교육기관의 학생들을 위해 무료 교통이용권으로 제공되는 장기 교통이용카드가 활성화된다.

12월12일은 제헌절 친애하는 사할린과 쿠릴 주민여러분!

러시아 연방의 제헌절을 축하드립니다!
올해 우리는 여러분과 함께 매우 중요한 선택을 했습니다.

러시아의 기본법 개정안에 찬성표를 던졌습니다.

시행될 변화는 사회적 보장을 강화시킬 것이며 의료계의 질과 접근성을 향상시키는 데 특별한 관심을 기울일 것입니다. 가정과 모성에, 유년기를 보호할 것이며, 풍부한 자연을 보호하겠습니다. 그리고 사할린과 쿠릴에게 특히 중요한 것은 국경의 불가침을 보장하는 것입니다.

이 모든 것은 앞으로도 국가의 발전과 주민들의 삶의 질적 향상과 우리 조상 대대로 힘써 지켜온 오래된 가치들을 보존하기 위해 크나큰 의미를 지니고 있습니다.

우리 모두 함께 모든 어려움을 극복하고 새로운 성취를 이룰 수 있을 거라 확신합니다.

여러분 모두에게 건강함과 성공과 행복을 기원합니다!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 주지사

제반시설 기획 회의 개최

지난 9일(화) 사할린 주정부에서 개최된 회의 안건으로 사할린 지역 투자 유치, 경제성장 중심지들의 사회적 제반시설 구축 및 현대화, 주 중심지의 건축학적 외관 개선이 포함되었다.

유리 트루트네브 러 정부 부총리는 "사할린 지역에서 국책 지원으로 93개의 기획이 시행되고 있다. 계약에 따른 투자액은 1천910억 루블리에 달하고 7천5백 개의 일자리가 창출될 계획이며 15개 기획 개발이 진행 중이다. 지역 경제에 투자자들이 총1050억 루블리를 투자했고 3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되었다."고 밝혔다.

사할린주 정부는 지역의 사회경제적 발전에 큰 영향을 끼칠 더 중요한 투자 기획을 제시했다.

안톤 자이체브 부수상에 따르면 2025년까지 사할린에서 투자액 5천583억 루블리의 43개 기획이 실현될 전망이라며 이 중 4천41억 루블리가 민간 기획이다. 이로써 1만1천 개의 일자리가 창출된다고 했다.

주요 교통사업 기획 중에는 코르사코브항의 교통 및 물류 분기점 조성, 샤흐초르스크항구의 현대화, 우글레고르스크의 석탄 컨베이어 설치, 섬 중심부에 신항만 건설, 유즈노사할린스크의 종합 항공터미널 건설이 언급되었다.

산업 기획으로는 천연액화가스 생산량 4만 천 톤 규모의 공장 건설, 5개 양어장, 저인망어선 현대화, 목재 가공산업 단지 조성이 있다.

쾌적한 도시 주변환경 조성을 위한 방면으로는

'픽크사의 기획으로 800m²의 주택 건설,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교육의 거리 및 외과 병동단지 조성, 사할린 국립대 캠퍼스 조성, 가스프롬의 기획으로 주거 지역과 3개의 스포츠 단지 건설이 있다.

중요한 관광 기획으로는 고르니 보즈두흐 정상에 969실 규모를 갖춘 호텔 건설, '아르히펠라그 오네코탄', '이투루프 리조트', '라구나 부세' 관광 및 휴식 클러스터 조성이 있다. 기술적 제반시설 개발에 따른 투자기획으로 '친환경'에 너지 분야도 논의되었다.

2018년-2022년 이 계획의 총 자금 규모는 857억 루블리에 달하며 이 중 361억 루블리는 '통합지원'으로 러시아 극동 개발부가 제공하는 연방 예산이다. 이 자금은 학교, 병원, 체육시설, 도로, 기술적 제반시설의 현대화, 교육과 의료기관의 장비 구입에 사용된다.

유리 트루트네브는 "이 기획들은 극동 지역들 중에서 프로그램에 따른 투자 규모로서 가장 크다. 강조하고 싶은 것은 지역 발전을 위해 사회적 제반시설 개발은 중요한 의미를 갖고 있다는 점이다."라고 밝혔다.

알렉세이 벨리크 사할린주 정부 수상에 따르면 2020년에 76개 정책이 시행되고 있다고 보고했다. 자금 규모는 연방 예산이 49억 루블리, 통합 예산 140억 루블리로 총 189억 루블리다. 한 해 동안 36개 시설을 건설 및 재구축 및 보수하는 것이 계획되었다. 12월 초에는 21개 대상의 작업이 완료된 가운데 이 중 5개 지방자치단체에 10개 주택단지가 건설되었다.

새고려신문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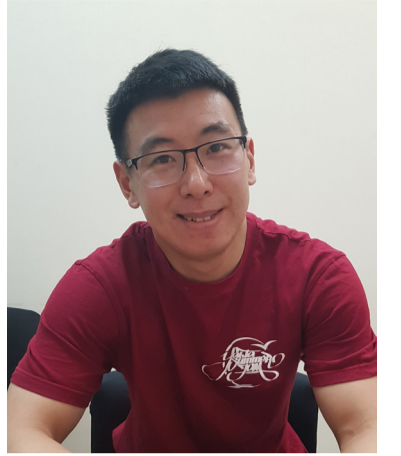
2021년 상반기 신문주문 계속

존경하는 독자 여러분! 2021년 상반기 새고려신문 구독신청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알려드리고 앞으로도 사할린 한민족지를 애독하시길 바라는 바입니다. 6개월 구독료는 **551루블리 10코페이카**입니다. 신문 인덱스는 ПР575입니다. 신문은 주내 모든 우체국에서 구독할 수 있습니다.

(본사 편집부)



'사회적 인정과 위상 만큼 새로운 도전을 하고, 계속 노력해야 성장할 수 있다'



강 콘스탄틴(30세)은 12년 전에 운명을 바꿀 만한 결심을 하였다. 그 당시 한 처녀가 그의 마음에 들어 그녀에게 멋진 남자임을 보여주고 싶어져 그 처녀의 마음을 사로잡기 위해 뭘 해야 할까 한 고민 끝에 브레이크 댄스를 배우기로 했다고 한다. 나중에 그 처녀와 헤어졌지만 이후 브레이크 댄스는 콘스탄틴이 좋아하는 일이 되었고, 사회사업이 되고, 밥줄이 되었다.

현재 콘스탄틴은 <라두가(무지개)>문화회관 소속 'YOUNG BULLETS CREW' 브레이크 댄스단 지도자이며 사할린주 브레이크 댄스 크협회 회장이다.

브레이크 댄스 그룹은 영문으로 명칭을 짓는다.

코르사코브 출신의 콘스탄틴은 8학년 때 유즈노사할린스크시 노위 알렉산드롭스크 구역 마을로 이사했다. 그는 태평양국립대학교 사할린 분교(현 극동연방대학교)에서 경영학을 배웠다. 그때 전공을 하려면 5년 공부해야 했다. 5학년 때부터 그는 공부를 하면서 동시에 일을 했다.

브레이크 댄스 매력에 푹 빠진 콘스탄틴은 지속적으로 연습을 하는 가운데 친구인 크랍첸코 세르게이가 노위 알렉산드롭스크 <라두가>문화회관에서 브레이크 댄스 수업을 대신해 달라는 부탁에 응해 이곳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가르친 지 벌써 9년이 되었다.

"친구 세르게이가 이미 이 문화센터에서 1년간 아이들에게 브레이크 댄스를 가르쳤거든요. 그런데 사정이 생겨서 저에게 아이들을 맡아 달라는 부탁을 했지요. 사실 많이 두려웠어요. '제가 과연 아이들에게 좋은 사범이 될수 있을까? 우리가 통할수 있을까? 제가 그런 실력이 있을

까?'등등 여러 고민을 많이 했어요."라며 콘스탄틴이 9년 전 일을 회상했다.

지금 그가 지도하는 이 브레이크 댄스팀은 10년을 맞이했다. 그동안 많은 제자들을 배출하기도 했다. 현재 <라두가>문화회관에서 브레이크 댄스에 약 60명의 강습생이 배우고 있는데 이들은 나이별로 5 그룹으로 나뉘어 있다고 한다. 경험이 많아 공연하는 팀들이 있고 신입들도 있다. 이들은 주에 3번 수업을 하고 있는데 고등학생들은 하루 2시간씩, 중학생들은 1시간 반씩, 초등은 1시간씩 연습을 하고 있다. 이들에게 재미있게 수업을 하려고 콘스탄틴은 항상 노력하고 있다. 이를 위해 무용감사 자격증, 문화교육자 자격증, 사범과 관련된 수료증 등등 여러가지 교육과정을 밟았다. 이것이 모두 학생들의 교육에 큰 도움이 되었다.

학생들에게 기술과 기본 동작을 가르치면 학생들 스스로 자기만의 춤 스타일을 만들어야 하고, 자신을 표현해야 한다고 콘스탄틴은 말한다. 브레이크 댄스에서는 자기만의 특징을 더 돋보이게 하는 게 매력이다. 예를 들어, 몸집이 조금 크든가, 또는 작거나, 키가 작거나 크거나 자기만의 특징을 재미있게 드러내는 자기만의 동작은 그 사람만의 독특한 스타일이 되고 이미지를 창출하게 된다. 그런 게 있어야 성장할 수 있다고 강 사범은 생각하고 있다.

그래서 지도자가 기본을 가르쳐주면 자유롭게 자기 표현법을 찾는 것은 학생들의 과제이고, 이때 선생님이 돕는 것이다. 창의력, 표현법을 통해 개인이 성장하고 팀과 어울려 함께 재미있게 자기 감성을 표현하는 법도 배우고 있다. 60명 제자들을 혼자 이끌어가는 게 보통 일이 아

니다. 다행히 그가 일하는 <라두가> 문화회관 지도부, 특히 스웨틀라나 사도와의 관장이 항상 협력하고 있다. 지도부를 통해 브레이크 댄스팀은 극동을 비롯해 전국 여러 곳에서 펼쳐진 축제, 경연대회 등에 자주 참가한다.

2015년에 콘스탄틴의 브레이크 댄스팀은 알타의 한 브레이크 댄스 축제에 참석해본 적이 있는데 그때 행사 주최자인 알타 브레이크 댄스 협회가 이 도시에서 얼마나 큰 활동을 하고 있는지, 정부로부터 인정을 받으며 그 위상에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다고 한다.

이것을 염두에 두고 사할린으로 돌아온 후 브레이크 댄스를 하는 모든 댄서(성인), 학교 지도자 등이 한 자리에 모여 경험을 공유하면서 이들은 사할린 주내에서 이런 활동을 하는 게 좋을 것 같다는 데 생각을 모았다고 한다. 이렇게 한 발자국씩 나아가면서 2년 후 사할린주 브레이크 댄스 협회가 창설되었고 강 콘스탄틴은 회장으로 선정되었다.

협회는 같은 뜻을 가진 사람들을 모으고 사할린 주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전파하기 위해 노력하고 있으며 여러 공연, 축제, 대회를 개최하고 자선사업을 해오고 있다.

2018년 강 콘스탄틴이 지도한 브레이크 댄스팀이 노위 알렉산드롭스크 제32학교 마당에서 브레이크 댄스 자선공연을 열어 돈이 부족해 치료비가 간절히 필요한 아이를 위해 처음 모금을 벌였다. 공연 결과 모금함에 8천 루블리가 들어 있었다. 이렇게 두 번 학교 마당에서 공연을 하고 나중에는 가가린 시공원 지도부의 협조로 공원의 공연장에서 자선 공연을 했다. 현재는 구제를 빙자한 사기가 있어서 정말 의료 도움이 필

요한 실제 아이를 돕기 위해 ACTB 방송국의 한 언론인의 협조로 공연을 하며 꼭 치료비가 급한 아이를 위해 모금을 하게 되었다. 야외 공연은 주로 여름에 하고 작년부터는 시티몰에서 실내공연을 하게 되었다. 실내 자선공연은 주로 겨울에 한다. 현재 자선공연 때 약 6만 루블리가 모금된다고 얘기한 강 콘스탄틴 회장은 만족하다는 표정을 지어졌다.

그렇지 않다. 그가 지도한 브레이크 댄스협회는 2018년에는 유즈노사할린스크시 자선가 콩쿠르에서, 2019년 사할린주 자선가 경연대회의 <친절과 자비(добро и милосердие)>부문에서 우승했다. 사실 경연에 참가할 생각도 없었는데 <라두가>문화회관 지도부의 부탁으로 참가하게 되었다고 강 콘스탄틴이 설명했다.

브레이크 댄스는 2024년에 파리에 개최될 올림픽 종목으로 결정되었다. 이와 관련해 현재 러시아에서도 준비를 하고 있다. 이번엔 극동지역 중 사할린주가 브레이크 댄스 부문을 포함해 최초로 주 스포츠댄스 선수권대회를 열게 된다. 이에 강습생들을 준비시키기 위해 김 콘스탄틴은 대단히 애를 쓰고 있다.

"사실 우리 협회에서 브레이크 댄스를 스포츠 부문으로 담당하는 사람이 따로 있습니다. 현재 <로지나>문화회관에서 브레이크 댄스 교육을 맡은 저의 친구 크랍첸코 세르게이가 이걸 담당하고 있습니다. 저 같은 경우, 최근에는 저희 팀에게 공연해 달라는 부탁과 자선공연, 교육과 경연대회 출연자 준비 등으로 너무 바쁩니다. 게다가 최근에 여러 경연대회 심사위원으로 초대받고 있거든요. 전에는 우리 팀이 1-2개월에 한 번 공연에 출연 제안을 받았으면 요

즘은 거의 1주일에 한 번 제안을 받고 있습니다. 그래서 때로 거절하기도 합니다.

우리 팀과 브레이크 댄스협회가 인기가 많아졌고 사할린 사회에서도 인정을 받아 위상이 올라가는 것이 한편 기쁜 일이지만 또 다른 한편으로 새로운 도전을 해야 하고, 계속 노력을 해야 성장할 수 있다는 걸 잘 알고 있습니다."라고 강 회장이 말하였다.

11살에 중병으로 아버지를 여윈 콘스탄틴은 몸이 약한 어머니 곁에서 외동 아들로 자라며 빨리 어른이 되어야만 했다. 책임감이 무엇이고 친척의 배려가 무엇인지 잘 알고 있는 바른 젊은이다. 그는 그를 많이 뒷받침 해주는 큰아버지와 고모를 비롯해 여러 친척들에게 늘 감사하고 있다고 한다. 얼마 전에 둘째 큰아버지 자택 근처에 자신의 집을 지은 콘스탄틴은 요즘 요리하는 취미에 빠져 새로운 요리에 도전하면 큰아버지 내외를 시식평가단으로 초대한다고 한다.

그의 얘기를 듣고 필자는 왠지 마음이 뭉클해졌다. 사람 간, 친족 간의 따뜻함이 얼마나 필요한지 깨닫게 된다.

브레이크 댄스와 아이들 교육에 행복을 느끼며 사랑 때문에 자신이 오랫동안 종사하게 될 일을 찾을 수 있었던 강 콘스탄틴의 앞날에 '화이팅!'을 보낸다.

(배순신 기자)

이 모 저 모

'2020 재능 마라톤'의 우승자, 돌린스크 출신의 마리나 키셀료와

돌린스크 출신의 마리나 키셀료와가 '2020 재능 마라톤' 전 러시아 대회에 출전해 '보컬' 부문에서 수상했다. '재능 마라톤'은 다자녀 가정의 자녀들이 자신의 기량을 발휘하도록 돕고, 창작의 의지를 심어주는 러시아에서 가장 큰 기획이다.

키셀료와의 가족은 4남매로 장남 막십이 17세, 마리나가 12세, 마트베야 6세, 막내 밀라나가 1세이다.

우승자의 어머니 이리나는 "마리나는 노래로 여러 대회에 참가해왔다. 7세 부터 음악학교에서 배우고 있으며 포르테 피아노과에 입학했다. 6세부터 노래 부르기 시작해서 마리나를 중앙문화회관의 노래 동아리에 등록시켰다. 다음 음악학교 보컬학과로 옮겨 여기서 포르테 피아노 수업도 계속하게 되었다. 현재 마리나는 돌린스크 아동음악학교의 '로드니초크' 시범 보컬양상블의 솔리스트로서 활동하고 있다."고 말했다.

경력에 있어 어린 솔리스트는 이미 많은 우승을 거두었다. 지난해 베이징에서 열린 '동양의 진주' 경연에서 그랑프리를 차지했고, '21세기의 아이들' 주내 경연에서는 1위를 차지했으며, 2019년에는 스페인에서 열린 '피에스탈로니아 밀레니오' 국제 보컬 경연에서 1위를 차지했다.

이제 마리나의 소원은 '아이들의 목소리' 경연에 참가하는

것이다. 새해 소망이 이뤄지길 바란다.

Марина Киселева из Долинска стала победителем конкурса "Марафон талантов — 2020"

Долинчанка Марина Киселева приняла участие во всероссийском конкурсе "Марафон талантов — 2020" и стала одной из победительниц в номинации "Вокал". "Марафон талантов" — это самый масштабный проект в России, который помогает детям из многодетных семей проявить себя и дать волю творческому началу.

В семье Киселевых четверо детей: старшему сыну Максиму 17 лет, Марине — 12, Матвею — 6 и самой маленькой дочурке Милане годик.

— Наша Марина поет, участвует в разных конкурсах, — рассказала мама победительницы Ирина. — В музыкальной школе Марина учится с семи лет. Поступила на отделение фортепиано. А петь начала с шести, мы ее записали в кружок при центральном доме культуры. Затем Марина перешла на вокальное отделение в музшколе, при этом занятия на фортепиано продолжила. Сейчас она одна из солисток образцового вокального ансамбля "Родничок" детской школы искусств Долинска.

У юной солистки в портфолио уже достаточно много побед. В прошлом году в ноябре она взяла гран-при на конкурсе "Жемчужина востока" в Пекине и заняла первое место в областном конкурсе "Дети 21 века". Ещё одна награда 2019 года — первое место в международном вокальном конкурсе Fiestaloniya Milenio в Испании.

Есть желание у Марины попасть на конкурс "Голос дети". Пусть оно сбудется в Новом году.

코르사코브, 인형 전시회 개최

코르사코브 향토역사박물관에서 독특한 인형 전시회가 열려 12월3일에 개막식이 진행되었다. 전시품들은 러시아 연방 및 사할린주의 명예 교사이며 유즈노사할린스크 명예시민, 폴리테크닉 전문학교 교수, 주의 명예 관공투어 안내자이자 우수 직업기술교육자, '2020 올해의 여성' 경연의 문화와 정신 부문에서 우승을 차지한 갈리나 아르히포와가 제공했다.

갈리나 인노켄치예브나는 여행 마니아이다. 어떤 여행에서나 민속 인형이든, 단순한 흥미로든, 특별한 모형이든 기념품이 없으면 안 된다. 그녀는 150개국 이상을 여행했고, 2010년에는 68세의 나이로 히말라야를 등반해 해발 8091미터의 안나푸르나 등정에 성공했으며 2014년 3월에는 남극 여행을 성취했다. 이런 열정으로 20년간 인노켄치예브나의 수집품에는 자신의 역사와 성격과 특성을 지닌 약 300개의 인형들이 모였다.

갈리나 아르히포와는 '극동 연구(식물학)', '사할린의 전설', '아니와만의 전설' 등을 비롯해 13권의 책을 저술했다. 2020년에 출판된 '코르사코브와 코르사코브 시지역: 인물과 진상의 역사'는 폭넓은 독자들에게 관심을 끌 것으로 보인다. 갈리나 아르히포와의 작품은 12월과 1월 두 달간 소개된다고 코르사코브 행정부가 전했다.

В Корсакове открылась выставка кукол

В корсаковском историко-краеведческом музее открылась уникальная выставка кукол. Торжественное открытие состоялось 3 декабря.

(8면에 계속)

러 부총리, 사할린의 코로나19 사태 파악

러시아 연방 정부 부총리 유리 트루트네브가 사할린 지역 출장의 일환으로 극동연방구 대통령 전권대표로서 코로나19 확산 방지 문제로 회의를 열었다. 회의는 비대면 화상회의로 연방 각 부처가 참석했다.

"사할린주의 하루 평균 확진자 증가 현황은 평균적으로 극동 연방지구 중에서 5위에 있다.

동시에 활동성은 진취적이다. 지역 상황은 섬이라는 고립된 위치, 높은 예산 확보, 의료장비와 구급차 수도 충분한 것을 고려해 볼 때 개선될 수 있었다.

지역이 제공한 정보에 따르면 추가 의료진 요청은 없으며 제때에 구급대원들이 출동하고 있고, 코로나19 감염 검진 지표도 특별한 경우 검진 결과가 규정상 48시간 이상 걸린다 해도 나쁘지 않다. 그러나 항바이러스제 비축 구성에 대한 요청이 있다.

우리의 공동 과제는 보건시스템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작동시켜야 하는 것이다.

중요한 과제는 사람들이 제때 의료적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모든 것을 해야 한다."고 유리 트루트네브는 강조했다.

사할린주 보건부 자료에 따르면 2020년12월 7일 기준 코로나19 확진자는 1만2천270명, 회복한 사람들은 8천960명, 사망자 9명이다. 감염률은 주민 10만 명당 255.9명이며 코로나 19 확산률은 0.98%이고 지역 격리병실에는 905병상이 확보돼 있으며 586개 병상을 환자들이 사용하고 있고 빈 병상 수는 319개 병상이다.

3천585명의 환자가 의료적 감독과 치료를 받고 있으며 이 중 2천999명이 외래 진료를 받고 있다.

사할린주 소비자보호감독청의 보고에 따르면 감염병 전염률 상승은 사할린주로 이주해 거주하는 주민들 중 97.2%가 등록된 것이 특징이며, 호흡기 질환자는 86.5%, 폐렴은 13%이다. 증상 정도에 따른 환자 비율은 경증이 81%, 중증은 11%이다.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는 사할린 지역에서 코로나19 확산 방지에 따라 시행되는 지침에 대해 보고했다.

기업들의 직원들 30%를 원격 근무로 전환시켰고, 상점과 쇼핑센터에는 18세 이하 미성년자들은 부모나 법적 대리인을 동반하지 않는 경우는 출입 제한된다.

주민의 65세 이상과 만성질환자는 의무 격리 지침이 적용되고 있으며 공공 장소에서는 마스크를 쓰도록 하고 있음에도 마스크 착용 준수는 부족한 것으로 지적되고 있다.

3개 연구소에서 연구 조사가 진행되고 있으며 코로나19 검진 횟수는 총45만6천797회다. 1일 검진 비율은 인구 10만 명당 456.6명(인구 10만 명당 200명 규정)이며 공항에 입도하는 사람들 중 코로나 19음성 판정 증명서가 없을 경우 검사를 실시하고 있다. 현재는 코로나19 검진 결과는 48시간 미만이 걸린다.

쿠릴열도에서는 기상 여건상 검진 결과는 더 길어지지만 환자들은 검체 분석 결과를 24시간 이내 전화로 결과를 알아볼 수 있다.

(7면에 계속)

민족통일대구청년 협의회, 제5회 <사할린의 밤>행사 개최

사할린 한인 영주귀국 동포 그 후 세미나

지난 2020년 11월 28일 오후 2시 그랜드 호텔 5층 수جوم에서 비대면 토론회가 조용하면서도, 발제자들 한 분 한 분 이 진중하게 마음을 다하여 발표 하는 표정은 가나한 사할린 한인의 정용된 그 삶을 대변하고 있었다.

이 세미나가 있기까지 15년 전 민족통일대구청년 협의회(회장 하태균)는 사할린을 방문하여 한인 1.5세대에서 2세대 되신 어른들을 모시고 대구의 밤을 개최하면서 그분들의 삶을 위로하고, 또한 고국의 청년 동포들과의 만남을 통해 무대공연에서 함께 어울리며, 음식을 나누는 흥을 통해 정(精)을 나누고 민간차원을 뛰어넘는 가족과 같은 마음으로 한결같은 시간을 보냈던 시간을 정리하며, 2020년 코로나19의 세계적 팬데믹 현상으로 국가적인 방역과 사회적 거리두기를 하는 가운데 확산되는 상황 속에서, 영주 귀국 동포도 그와 함께 더욱 외롭고 쓸쓸한 한 해를 보내었고, 그중 연로하시어 죽음을 맞이하는 가운데 코로나19 방역으로 국가 간 제한 조치로 사할린에 있는 자식들이 임종도 보지 못하는 안타까운 현실을 직시한 동포들 중에는 우울증에 걸린 분도 있다는 것을 감안하면서, 본 토론회는 하태균 회장의 사회로 진지하게 진행되었다.

첫 번째 발제자인 전국 사할린 귀국 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은 사할린 귀국 동포들의 오늘까지 고국인 대한민국 땅에서 정착하기까지 역사적 배경을, 두 번째 발제자인 김포시 사할린 동포회 박노영 회장님이 더 세분화된 한-러 수교 이후 사할린특별법 제정 통과와 더불어 더 세분화된 8가지 조건적 제안을, 세 번째 발제자인 나사렛대학교 평생교육원 SPL 최고경영자 책임교수 이택근은 영주 귀국 한인 동포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에 대해 역사적으로 고찰된 내용이 담긴 논문이나 자료가 부족하기에 정기적인 학술지가 발간되어 이생에서 하고 싶은 이야기가 많은 아버지

들의 삶이 1세에서 2세로 끝나지 않고 3세 4세 까지, 그리고 그만한 사회적 위치로 삶을 살아가기까지 어떤 모습으로 살아왔는지 알리고, 역사적 가치를 자료로서 남길 수 있어야 하지 않는가 제안하면서, 영웅은 아니지만 자신의 의도와는 관계없이 정용으로 끌려온 그 아버지 어머니의 삶을 살면서 투쟁하고 성공하기까지, 저예산의 독립영화로서 스마트폰으로 영화를 찍어 사할린 동포들의 과거와 현재 미래를 담은 영상이 유튜브 방송으로 이어지면 어떨까 하는 제안을 했고, 네 번째 발제자인 대구 청년회의소 00 회장 김덕현은 '내 증조 할아버지가 정용으로 가셨던 사할린에서 태어났으면 어떠하겠느냐?'는 말로 서문을 열면서 우리 대한민국 여러 곳에 흩어져 살고 계시는 동포들을 그 만큼 따뜻하게 품어주고 있는가? 아니면 낯선 나라 이방인처럼 살게 하지 않았는가를 세밀한 부분을 돌아보자면서 감정의 울림으로 세미나를 마무리 지었다. 이후 달성군 송해 공원을 거리두기로 산책하고 난 후, 일월정에서 저녁 만찬을 하고 그랜드 호텔 숙소로 돌아와 다음날 있을 대구 사할린의 밤 5회 행사를 앞두고 밤을 맞이했다.

아~ 사할린 희망을 이야기 하자 제5회 대구광역시 사할린의 밤 행사 개최

어렵게 마련 된 행사였다. 해마다 맞는 대구광역시 주최하고 대구 민족통일 청년협의회가 주관하는 약200~300명의 영주 귀국 동포 어른들을 모시고 식사를 대접하고 함께 어울리며, 시내 투어를 하고 선물을 드리며 그렇게 진행되었던 행사가 코로나19 확진자가 전국적으로 퍼지면서 여러 번 연기 끝에 철저한 방역과 거리두기를 지키기로 하고 집행부가 철저하게 그리고 질서 있게 추진하는 가운데 "사할린의 밤" 행사를 그랜드 호텔에서 김덕현 회원의 사회로 진행했다. 예년에 비해 규모 면에서는 작지만 권경석 회장님과 임원단 남양주 천안 아산 서천에 계신 90여 분이 마스크를 쓰고 거리두기로 옆 사람과



대화도 못하고, 아주 조용히 개인별 식사를 하고, 평양 예술단 식전 공연과 SP 아카데미 상블이 만든 신나는 바이올린 연주와 경북예술고등학교 1학년 이채원 양이 초등학교 시절 사할린에 갔던 그 깊은 추억이 그리워 부른 민요로 심금을 울리는 식전 행사가 끝나고, 국민의례와 국민의 힘 국회의원 주호영 원내 총무의 영상 메시지 축사를 수성구 김대권 구청장이 전하고, 남구 조재구 구청장의 영상 메시지는 참석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겨주었다. 비대면 축사에 이어 답사로 전국 사할린 귀국 동포연합회 권경석 회장님과 남양주시 사할린동포회 이수진 회장 등 참석자를 대표해 답사가 있었다. 분위기가 더욱 엄숙한 가운데 비대면 제5회 사할린의 밤에 대한 개최 의미를 부여하면서 민족통일 청년협의회 하태균 회장이 "더 잘하겠습니다. 더 잘 모시고 더 흥겹게 해드려야 하는데 그러지 못한 점 이해해 달라"는 간절한 마음을 전하며, 그동안의 사할린에서의 대구의 밤을, 대구에서 사할린의 밤을 교차 개최하고 진행하면서 가슴에 와 닿았던 사할린 동포들의 애뜻한 마음을 잔잔하게 눈물을 머금고 전할 때 그 분위기는 엄숙 그 자체였다. 비대면 행사가, 참으로 역사적인 행사가 이렇게 5회까지 흘러가고 있다.

(민족통일대구청년 협의회 제공)

김남중의 언제나 동화처럼

비대칭적 언어 발달



최근에 점점 심해지는 증상이 있다. 분명히 알고 있는 단어로 머릿속에서는 의미가 선명하게 말하려 하면 잘 나오지 않는 것이다. 다른 사람과 이야기 하다가 그 증상이 나오면 화제를 돌린다. 단 이야기를 하다보면 그 단어가 늦게라도 떠오른다는 것을 알지만 이야기의 흐름이 바뀌면 이미 버스 떠난 뒤가 되기 쉬워서 고민이 된다.

다른 건 몰라도 작가는 직업상 어휘력은 필수요소다. 더구나 그 증상이 어휘력에만 국한되지 않고 뇌기능 전체로 퍼지는 건 아닐까 싶어 불안하다.

나름대로 원인을 찾아보았는데 대인접촉 부족 때문인 것 같다. 그리고 보니 얼마 전부터 다시 회사에 다니고 싶다는 생각이 들었다. 다른 건 필요 없고 퇴근 뒤 동료와 마시는 맥주 한 잔 때문이다. 가족보다 더 많은 시간을 보내는 동료와 밤 깊은 줄 모르고 별별 이야기를 다 나누던 시간이 새삼 그립다.

전업 작가가 된 뒤로 사람과 이야기 하는 시간이 극도로 줄어들었다. 외딴 곳에 작업이라도 들어가면 전화가 걸려올 때 빼고는 말 한 마디 하지 않는 날이 두세 달이다. 집에 있어도 아이들이 학교에서 돌아올 때까지 혼자 운동을 하거나 책을 읽는 일상이 계속된다. 아내와 마주 앉아 밤늦도록 이런저런 이야기를 하는 게 큰 즐거움이었는데 얼마 전부터 아내가 다시 일을 시작하게 되어 그마저도 힘들다. 말을 걸면 아내의 무거운 눈꺼풀이 먼저 보여 안방 불을 끄고 문을 닫아 주게 된다.

가끔 강연을 나가 독자를 만나기도 하지만 주로 말을 하는 자리여서 대화의 즐거움은 적다. 이런 생활을 계속 하다 보니 머릿속 언어와 입속 언어가 비대칭적으로 발달을 하게 된 것이다.

대화란 삶의 윤희이다. 많지도 문제여서 일상이 매끈할 만큼만 있으면 되는데 그게 참 어렵다. 간혹 허공을 보며 쓸 새 없이 떠들어대는 사람을 보면 그 외로움이 얼마나 컸을지 알 것 같기도 하다.

바닷가 작업실에서 겨울을 보내고 봄을 맞은 지금도 그 증상은 여전하다. 얼마 전 별려서 서울에 갔다가 모임에서 기러기 아빠를 갈매기 아빠라고 말하는 바람에 놀림거리가 되었다. 어떤 영화에서 무인도에 표류한 주인공이 배구공을 윌슨이라 부르며 아껴주던데 내 농구공에 스팅이라는 이름을 붙여주는 단계까지는 정말 가고 싶지 않다.

광주에서 김남중

사할린, 코로나19 백신 접종 시작

사할린 지역은 전국과 극동지역에서 처음으로 코로나19 백신을 사할린 주민들에게 접종을 시작했다. 12월 6일 아침 유즈노사할린스크에 국산 무료 백신 '스푸트닉 5' 300회분이 공급되었다. 항공기 적재함에 있던 백신은 곧바로 의료기관으로 전달되었다.

백신 접종 과정은 여러 단계로 이뤄질 전망이다. 이후 백신 약품은 2주 후에 사할린 지역에 공급될 예정이다.

첫 백신 접종자는 위험군에 속한 사람으로서 확진자와 직접적 접촉을 하는 의료 종사자들, 일반 의사와 간호사들에게 접종하고 이들과 함께 학교의 교사들, 사회기관의 종사자들에게 접종한다.

다음 남은 사할린 주민들에게는 자발적 절차로 접종하고 빠른 시일 내에 백신 접종을 원하는 주민들에 대한 자료 수집이 시작될 예정이다.

"주민들의 편의를 위해 '1-300'이라는 제품을 사용할 예정인데 국가서비스 사이트를 통해 녹화를 진행할 수도 있다. 백신은 무료이며, 누구든 원하면 접종 받을 수 있다. 접종을 받는 모든 환자는 연방 통합기지로 가야 한다. 이는 결과와 모든 발생할 수 있는 장애를 추적하기 위해 필요하다."고 사할린주 보건부 장관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가 설명했다.

전문가에 따르면 사할린주에 면역계층을 형성하기 위해서는 전 주민의 30%가 접종을 받아야 한다고 사할린주 정부 홍보실이 전했다.

О диаспоре, и не только

Самые высокие доходы в течение жизни – у 45-летн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017 год, пик средних годовых трудовых доходов работающих южнокорейцев пришёлся на возраст 45 лет, в то время как люди в возрасте 59 лет начинают тратить больше, чем зарабатывают. Об этом свидетельствуют данные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татистиче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опубликованные в понедельник. У жителей страны в возрасте 45 лет средний годовой трудовой доход составил 33 млн 540 тыс. вон (31 тыс. долларов) на человека. У детей и молодёжи в возрасте от 0 до 27 лет потребление превышает доходы из-за платы за образование. Начиная с 28 лет, трудовой доход начинает превышать потребление. Такая ситуация продолжается до 58 лет. Превышение доходов над потреблением достигает максимума в 14 млн 840 тыс. вон (13.700 долларов) в 45 лет. После этого данная сумма начинает постепенно уменьшаться. С 59 лет южнокорейцы начинают тратить больше, чем зарабатывают, из-за затрат на здравоохранение.

KBS World

Подпишись на газету "Сэ коре синмун!"

Продолжается подписка на 1-е полугодие 2021 года.

Только у нас самые свежие, эксклюзивные и достоверные новости и публикации из жизни корейского сообщества Сахалина, а также новости из Южной и Северной Кореи.

Стоимость подписки на 1-ое полугодие 2021 г. — 551 руб. 10 коп. Индекс газеты: ПР575

Газету можно выписать во всех отделениях связ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орогие мамы, папы, бабушки и дедушки!

Скоро Новый Год - праздник волшебства!

Подарите Вашим детям ИМЕННОЕ интерактивное видео-поздравление от Деда Мороза! Дед Мороз поздравит каждого ребёнка по имени (от 1 до 5 имён).

Создайте Новогоднюю сказку для детей!

Стоимость 500руб.

Телефон : 8- 929-9414679, 8-929-9419686 (WatsApp)

СТОМАТОЛОГИЧЕСКАЯ КЛИНИКА "РАДИКС"

Сделай свою улыбку красивой!!!



Тел.: 50-00-50; 43-31-31

Реклама

Корея использует музыку как нефть и оружие

Власти Южной Кореи решили проблему, которая грозила стране большими убытками и почти революционным недовольством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Для этого потребовалось избавиться от военной службы так называемых кей-поп-артистов. Кей-поп – не просто музыка, а проек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начения. В отличие от корейской армии, он уже успел покорить почти весь мир, пусть даже вы о нем ничего не слышали.

Армия Южной Кореи (РК) является седьмой в мире по численности, пятой по количеству боев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и десятой по оборонному бюджету. Столь выдающиеся мускулы необходимы стране из-за вековой вражды с кровным родственником – КНДР, где военных почти втрое больше (четвертое место в мире).

Вдобавок каждый мужчина с более-менее сносным здоровьем должен пройти срочную службу в течение 20 месяцев и обучиться азам военной науки на случай войны с северным соседом.

Исключений почти нет. Чтобы от военной службы освободили, например, талантливого спортсмена, он должен, как минимум, завоевать бронзу на Олимпийских играх.

Но есть отсрочки до 30-летнего возраста – для тех же спортсменов, а также актеров и музыкантов. Подобная практика существует во многих странах с призывными армиями и везде под музыкантами понимают тех, кто занимается академическими направлениями музыки.

Теперь парламент РК разбил скрипачей и пианистов «успешными представителями массовой культуры». И все в стране и вокруг нее понимают, что такая поблажка сделана специально для кей-поп-групп и по многочисленным просьбам корейского народа – от официантов до миллиардеров.

Кей-поп – это буквально корейская попса, местные аналоги Backstreet Boys и Spice Girls. Среди характерных особенностей – длинные, состоящие из нескольких мелодий композиции, сложная хореография и смазливый исполнитель. И это явно тот случай, когда лучше самому увидеть, чем читать чужие описания.

Вот, к примеру, клип группы BTS – наиболее популярной в своем жанре. Корейские СМИ уверены, что закон об отсрочках был принят именно сейчас для того, чтобы в солдаты не забрали одного из солистов BTS – Чина, который использовал уже все возможные способы «откоса» и должен был пойти в армию в декабре, когда ему исполнится 28 лет. Вместо этого он сможет петь и плясать еще как минимум два года.

Такое внимание властей объясняется тем, что кей-поп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 это не совсем то же самое, что для России эстрада или даже балет. Лучше сравнить его с нефтедобычей и производством оружия – столпами экономики страны и ключевыми статьями ее экспорта, что правительство должно опекать просто по определению.

Если и есть здесь натяжка, то незначительная. На родине кей-поп сравнивают пусть не с нефтью, но с такими сильными сторонами 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как производство автомобилей и электроники. Прибыль от них пока что значительнее, но это пока. Вложившись в поп-музыку на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ровне, официальный Сеул неожиданно для всего мира напал на золотую жилу.

Кей-поп, как явление, появился задолго до 1997 года – у каждой страны есть своя «попса», от Румынии до Перу, была она и в Южной Кореи. Но именно в 1997-м регион Юго-Восточной Азии охватил разрушительный финансовый кризис – тот самый, что стал одной из причин российского дефолта в августе 1998 года. Тогда правительству РК срочно пришлось искать новые точки роста для экономики – и, помимо прочего, было решено вложиться в поп-музыку.

Звучит в общем-то дико. Представим, что в августе 1998-го администрация Бориса Ельцина объявила, что в целях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кризису бюджет окажет поддержку группам «На-На», «Тату» и «Иванушки International».

Тем не менее, проект был утвержден. В министерстве культуры был создан специальный департамент, получивший значительный бюджет. Он был направлен на строительство концертных площадок, разработку в области спецэффектов, усиления лоббистов, которые продвигали этот продукт, и юристов, которые его защищали от копирования.

Кей-поп не был в строгом смысле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м предприятием. Как и почти везде в мире, в основе поп-индустрии находились частные звукозаписывающие компании и продюсерские центры. Скорее можно говорить о сложении усилий чинов-

ника и частного – явлении, характерном для наиболее жирн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РК. Она до сих пор сохраняет высокую степень монополизации и держится на чеболях – финансово-промышленных конгломератах, опекаемых властями (Samsung и Hyundai – это тоже чеболи).

Сейчас, спустя 23 года после старта проекта, регулярная аудитория кей-поп-артистов в интернете насчитывает 100 миллионов человек, что вдвое превышает население Южной Кореи. Эта музыка покорила уже все континенты (кроме Антарктиды) и множество стран, не исключая Россию.

Если вы ничего не слышали про кей-поп, то лишь потому, что не проходите в целевую аудиторию по возрасту. По сути, Корея сейчас заняла то место, которое занимал англосаксонский мир в эпоху рока и фестиваля «Вудсток». Однако с поправкой на то, что The Beatles и The Rolling Stones существовали параллельно с МИ-6 и правительством Ее Величества, а корейская власть напрямую опекает кей-поп.

Дело не только в том, что эта индустрия сама по себе зарабатывает огромные деньги. Она стала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новым «лицом» и мощным туристическим магнитом: даже концерт средненькой кей-поп-группы обеспечит любому провинциальному городу страны толпы туристов, включая иностранных.

Не важно, считаете ли вы кей-поп искусством. Это прежде всего экономика, «торговая марка» страны, ее «мягкая сила». Однако первые примеры использования кей-попа как политического оружия уже есть – и тоже с корейской спецификой.

На границе двух корейских государств периодически устанавливают усилители, чтобы транслировать на территорию противника лозунги, эдак «докрикиваться» до «оболваненных пропагандой» бывших соотечественников. Со стороны РК вместо лозунгов иногда используют кей-поп-песни: нетрудно догадаться, что в КНДР они запрещены и в то же время востребованы населением.

Китай, в свою очередь, резонно воспринимает кей-поп значимой частью южнокорейской экономики и уже вводил против него «секторальные санкции», как Запад против России в сферах энергетики и ВПК. Так, Пекин стал отказывать в визах кей-поп-артистам и блокировать связанный с ними контент после того,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согласилась на размещение на своей территории элементов ПРО США.

Но пресечь увлечение своей молодежи кей-попом в полной мере китайские коммунисты не смогли, тем более, что существуют группы с дублирующим составом, где один поет на корейском языке (как и все остальные коллективы в этом жанре), а второй на мандаринском – самом распространенном диалекте китайского языка.

Сеул официально донес до Пекина, что считает произошедшее национальным оскорблением.

В этих условиях успешное уклонение особо популярных кей-поп-артистов от армейской службы стало для Южной Кореи задачей национального значения. Группы, собирающие стадионы любого размера, куда полезнее для страны в качестве идиологов, чем в виде обычных солдат. При этом еще вопрос – чья служба сложнее.

Создавая поп-кумиров, корейские продюсеры действовали так же, как американцы, первыми придумавшие зарабатывать на бой-бендах. И, как это принято в Азии, довели западную технологию до совершенства. Индустрия кей-попа – конвейер, где артисты себе не принадлежат. Жесткий режим, строгая диета, постоянные репетиции и концерты, выматывающий график, почти полное отсутствие времени на семью и даже на себя – таковы их будни.

Это, конечно, не рабство – люди не могут находиться в собственности даже в Кореи, их базовые права неотчуждаемы. Однако над артистами довлеют не только контрактные обязательства, но и технология самой индустрии – любого «звездившегося» можно заменить новеньким, их уже готовят в соседнем здании. Как следствие, у звезд кей-попа не больше собственной воли, чем у роботов производства Hyundai. В то же время фан-клуб BTS – один из самых больших в мире. Что самое смешное, в Кореи его тоже называют «армией».

В конечном счете все это можно воспринимать как развлекательное страноведение: во Франции едят лягушек, в Тибете седлают яков, а в РК зарабатывают миллиарды на поп-музыке. А можно как напоминание о том, что экономическая и культурная мощь страны иногда зависит не столько от талантов ее граждан, сколько от расторопности и креативности ее чиновников, подчас способных превратить в проект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го значения даже «музыку для маленьких девочек», как иногда называют кей-поп.

(Газета "Взгляд", Дмитрий Бавырин)

О Корее и корейцах

Президент РК произвёл частич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4 декабря президент РК Мун Чжэ Ин произвёл частичные перестановки в правительстве, сменив четырёх министров. От занимаемой должности освобождена министр сухопутных территорий и транспорта Ким Хён Ми, работавшая с момента прихода к власти правительства Мун Чжэ Ина в 2017 году. Вместо неё на должность министра назначен Пён Чхан Хым, возглавлявший Корейскую земельно-жилищную корпорацию. Депутат Национального собрания трёх созывов от правящей Демократической партии Тобуро Чон Хэ Чхоль сменил Чин Ёна на посту министра административного управления и безопасности. Директор Корейского института развития индустрии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Квон Док Чхоль назначен министром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и социального обеспечения вместо Пак Нын Ху. Министром по делам женщин и семьи вместо Ли Чжон Ок назначена член правления Корейского женского фонда Чон Ён Э.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вводится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2,5

С полуночи 8 декабря в столичном регионе РК, включающем Сеул, провинцию Кёнгидо и город Инчхон,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повышен до 2,5. Четвёртый по величине уровень в пятиуровневой системе противодействия распространению вируса COVID-19 будет действовать на протяжении трёх недель. По данным Корейского управления по контролю и профилактике заболеваний, будут закрыты около 130 тыс. объектов особого риска, время работы ещё 460 тыс. объектов будет сокращено. Запрещены мероприятия с участием более 50 человек, включая похоронные и свадебные церемонии. Закрываются тренажёрные залы и караоке, которым ранее разрешалось работать до 21:00, а спортивные соревнования проводятся без зрителей. Предприятия общественного питания могут работать, как и раньше, до 21 часа, после чего возможны лишь доставка и продажа навынос. Кафе по-прежнему будут работать в режиме на вынос. Кинотеатры, интернет-кафе, учреждения дополнительного образования, парки развлечений, парикмахерские, крупные продуктовые магазины и универмаги могут работать только до 21 часа. На церковных службах могут присутствовать не более 20 человек. Начальные школы переходят на режим онлайн-обучения. В остальных регионах страны установлен второй уровень социального дистанцирования.

КНДР ввела максимальный уровень карантина

Пхеньян повысил уровень карантина до самого высокого, третьего, сообщило во вторник агентство ЦТАК. Он предусматривает ограничения на передвижение населения, максимальный контроль за общественными объектами, полную изоляцию регионов, приостановку занятий в учебных заведениях. Работа некоторых магазинов, заведений общепита и бань временно прекращается. Органы власти на всех уровнях оснащены средствами для поддержания связи в формате видеоконференций. Данные карантинные меры вводились в феврале текущего года. По данным ВОЗ, по состоянию на 25 ноября, 16.914 северокорейцев прошли тестирование на COVID-19. Из них порядка 5 тыс. тестов были проведены в течение последнего месяца.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ддержит организации, помогающие Северу

Правительство РК поддержит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е организации, которые оказывают гуманитарную помощь Северной Корее. Об этом 4 декабря заявил министр по делам воссоединения РК Ли Ин Ён в ходе состоявшейся встречи с руководителями Корейского совета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с Северной Кореей. Кроме того, он приветствовал недавнее решение Совета Безопасности ООН продлить период освобождения от санкций гуманитарной помощи Северу с нынешних шести до девяти месяцев. Министр пообещал рассмотреть возможность открытия морских и наземных маршрутов через границу и создания органа, который будет контролировать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ов сотрудничества, согласованных двумя Кореями. Совет объединяет 55 неправительственных организаций, оказывающих помощь Северу.

В РК отменены новогодние мероприятия

В рамках борьбы с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м вируса COVID-19 власти Сеула отменили в этом году торжественные мероприятия, которые обычно проходят в центре столицы в ночь с 31 декабря на 1 января. Это массовые гуляния и церемония ударов в древний колокол Посингак на проспекте Чонно. 33 удара в колокол символизируют наступление следующего года. Вместо церемонии в интернете и по телевидению будет транслироваться заранее записанная инсценировка с колокольным звоном и обратным отсчётом времени, оставшегося до наступления 2021 года. Церемония, которая привлекает множество людей, проводилась ежегодно, начиная с 1953 года. Она отменена впервые за 67 лет.

(RKI)

«Быть девочкой уже считалось недостатком». История корейки, которая пошла против традиций

Автор книги «Иди туда, где трудно. 7 шагов для обрет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силы» Таэ Юн Ким пережила тяжелое детство. Ее родители хотели мальчика, считали ее проклятой, а в войну и вовсе оставили дочь. Однако она смогла не только выжить, но и стать сильнее, о чем и рассказала в своей автобиографии.

Корейка Таэ Юн Ким родилась в деревне, в середине XX века. Родители ждали мальчика и считали, что она своим появлением принесла в дом неудачу. Ее били за то, что она не была похожа на сверстниц, не хотела замуж и интересовалась боевыми искусствами. Через много лет, уже переехав в Америку, Ким смогла открыть свою школу единоборств. Она считает, что каждый может достичь своей цели и воплотить мечты в реальность. Об этом она написала книгу «Иди туда, где трудно. 7 шагов для обретения внутренней силы», перевод которой вышел в издательстве «Бомбора» в конце июня. Forbes Woman публикует фрагмент о детстве героини.

(Окончание. Начало в №47)

Поскольку дочери ценились меньше сыновей и были только лишним ртом в семье, многие бросили своих дочерей и сбежали с сыновьями. Моя семья поступила именно так. Они сбежали и бросили меня. Мне было всего пять лет. Я кричала в ужасе:

— Мама, мама! Где ты? Где ты?

Один старик схватил меня за руку и воскликнул:

— Замолчи!

У меня уже тогда был очень громкий голос.

— Идем со мной, — велел он. — Тебе нельзя оставаться здесь.

Это был полнейший хаос. Мои уши гудели от шума самолетов, которые неслись над головой, и от бомб, взрывававшихся повсюду вокруг.

Я бежала, чтобы не отставать от остальных, но мои короткие ножки устали. Внезапно ко мне подбежала девочка на несколько лет старше. Я никогда раньше не видела эту девочку и по сей день не знаю, кто она.

— Не останавливайся, — торопливо сказала она. — Нам нужно выбраться отсюда. Побежали наперегонки!

Я не поверила своим ушам. В этом аду кто-то впервые в жизни проявил ко мне доброту. Ее слова были сладкими, как мед. Я привыкла к окрикам, поэтому та девочка показалась ангелом. Мне хотелось сделать ей приятное, и я снова побежала.

В тот миг я забыла о маме и обо всех остальных. Все мои мысли были только о новой подруге. Я помчалась за ней из последних сил и очень старалась не отставать. Я устала, но девочка все время подбадривала меня, просила продолжать бег. Потом я услышала самый громкий звук в моей жизни. Тогда я не знала, что произошло, но прямо рядом с нами разорвалась бомба, и я потеряла сознание.

Не знаю, сколько времени прошло, пока я не очнулась. Придя в себя, я не искала мать, я искала новую подругу. Я отчаянно разыскивала ее в хаосе, царившем вокруг. Люди плакали и истекали кровью. Некоторые куда-то ползли. Некоторые барахтались на земле.

Я все искала свою подругу, звала ее:

— Где ты? Где ты?

Своим детским умом я думала, что все это произошло оттого, что я недостаточно быстро бежала. Я хотела извиниться перед подругой и пообещать теперь

бежать быстрее. Может быть, когда-то в детстве или во взрослой жизни ты тоже решал по ошибке, будто виноват, когда вокруг все шло прахом?

Я иступленно носилась от человека к человеку, разыскивая свою подругу. Когда я нашла ее, она неподвижно лежала на земле. Она истекала кровью, ее тело было изломано под странными углами.

Я трясла и трясла ее, и мое сердце болело, когда я кричала:

— Проснись, проснись, пожалуйста, проснись! Я обещаю, я буду бежать быстрее! Проснись!

Потом я заметила, что у нее нет рук и ее тело покрывают невероятные раны. Она так и не очнулась.

Такой была моя жизнь в пять лет. Я не играла в игрушки. Я должна была выживать. Я боролась за жизнь. Я пережила войну, страдание, страх и потерю. Я нашла добрую подругу и в следующий миг потеряла ее. Совсем одна, перепуганная, я поглядела в небо и закричала на странные злые штуки, которые летали по воздуху:

— Зачем вы пытаетесь меня убить? Я просто маленькая девочка!

Повсюду я узнавала тела людей из моей деревни. Многие из них были моими тетями, дядями и кузенами, говорившими:

— Ты приносишь неудачу, девочка. Иди, поиграй в другом месте!

Но вот они лежат на земле, раненые, а то и хуже, а я одна цела и невредима. Помню, подумала: «Как странно. Говорят, я приношу неудачу, но они ранены и лежат в крови, а я просто тут стою. Наверное, я, наоборот, очень удачливая».

Никогда не забуду увиденного в тот день. Момент был настолько страшным, что мало походило на правду.

СРЕДИ ЭТОГО УЖАСА Я ПРИНЯЛА РЕШЕНИЕ, КОТОРОЕ НАВСЕГДА ИЗМЕНИЛО МОЮ ЖИЗНЬ: Я БОЛЬШЕ НЕ БУДУ УБЕГАТЬ. Я НЕ БУДУ ПРЯТАТЬСЯ.

Что бы со мной ни случилось, я стану сама отвечать за свою жизнь. В душе я знала, что у меня есть предназначение и ничто меня не остановит.

Вот откуда взялось во мне упорство, готовность бороться изо всех сил и преодолевать любую преграду на пути, а не бежать от нее. Я не знала, как постоять за себя, но верила, такой способ существует.

(Источник: Forbes Woman)

Культ ЕГЭ

Как Южная Корея сдает экзамены в условиях коронавируса

3 декабря в Южной Корее был один из важнейших дней для почти полумиллиона учеников выпускных классов школ - они сдавали единый государственный экзамен, от результатов которого зависит, в какой вуз молодые люди смогут поступить. Сдача тестов проходила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Однако корейцы стремились продемонстрировать, что жизнь у них продолжает идти почти как и ранее.

На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участках соблюдаются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все должны быть постоянно в масках.

В Южной Корее, где под влиянием конфуцианства царит культ образования, к этому экзамену относятся как к важнейшему событию. Так как страна живет в одном часовом поясе, то опечатанные конверты с вопросами и задачами вскрываются одновременно, и вся процедура происходит для всех экзаменуемых в одно и то же время. Власти делают все возможное, чтобы устранить малейшие препятствия, которые могут мешать кому-то из школьников. Рабочий день начинается на час позже, дабы не создавать пробок, которые могут задержать школьников. Дежурят специальные наряды полиции, а также такси и добровольцы со своим транспортом, к которым можно обратиться, чтобы они подвезли опаздывающего на ЕГЭ школьника.

Во время заданий на аудирование по иностранному языку в аэропортах страны запрещены взлет и посадка самолетов, что заставляет авиакомпании перекраи-



Фото: EPA

вать расписание рейсов. ЕГЭ в день его сдачи является самой главной новостью для всех южнокорейских СМИ. С самого раннего утра и до позднего вечера новостные выпуски начинаются с рассказа об этом событии. Телеканалы переполнены сюжетами про спешащих на тесты школьников и молящихся за них родителей.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часов после завершения сдачи ЕГЭ, когда становятся известны конкретные вопросы, которые были вынесены на экзамен в этом году, педагоги и эксперты в прямом эфире разбирают задачи, оценивая уровень сложности по сравнению с предыдущими годами.

В этом году возможность сдавать экзамены была предоставлена всем выпускникам школ, включая тех, у кого диагностировано инфицирование коронавирусом. Таковых в Корее набралось 37 человек. Еще 430 молодых людей находятся на обязательном карантине. Для всех них были подготовлены специальные комнаты, где они могли сдавать тесты отдельно. Присутствующие при этом учителя были одеты как медики, работающие в инфекционных отделениях. Но и на обычных экзаменационных участках соблюдались строгие правила: все были в масках, места каждого сдающего экзамен отделили прозрачными перегородками, во время перерывов было запрещено общаться с кем-либо, а принимать пищу можно было лишь сидя на своем месте.

Олег Кирьянов ("Российская газета", Сеу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дал старт вакцинации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Островной регион одним из первых в стране и первым на Дальнем Востоке приступил к масштабной вакцинации жителей от опасной инфекции. Утром 6 декабря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 поступила партия бесплатной отечественной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 V» – 300 доз. Ранее губернатор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овёл ряд рабочих совещаний в Москве, чтобы ускорить поставку препарата на острова.

С борта самолёта вакцина сразу поступила в медицинское учреждение.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проконтролировал процесс иммунизации в поликлинике №4. Он пообщался с врачами и медсестрами, подбодрил людей, которые пришли на прививку.

– Сегодня у нас знаменательный день. Пришла первая партия вакцины. Это значит, что у пандемии появилась Рубикон, – отметил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 Первыми вакцину получают медицинские работники. Эти люди находятся на передовой борьбы с инфекцией, в опасной зоне и могут заболеть в любую минуту. Рассчитываю, что в ближайшие месяцы прививку получит большое количество людей и у нас заработает эффективный механизм защиты жителей от коронавируса.

Губернатор напомнил, что в июле этого года он сам принял участие в испытаниях вакцины «Спутник V». Глава региона сделал две прививки, через месяц, как показали анализы, у него появились антитела и выработался иммунитет к коронавирусу.

Процесс вакцинации будет многоступенчатым. Следующую партию препарата в Сахалинскую область доставят через 2 недели. Первыми вакцину получат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рупп риска – это медработники, которые находятся в прямом контакте с пациентами, затем врачи и медсестры общего звена. Вместе с ними будут прививаться учителя, работники социальных служб. Далее – в добровольном порядке остальные жители области. В ближайшее время начнется сбор данных у граждан,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лучить вакцину.

– Для удобства жителей будем использовать ресурс «1-300», возможно запись проведем через портал госуслуг. Вакцинация будет бесплатной и общедоступной. Любой пациент, который получает прививку, попадет в единую федеральную базу. Это нужно для учета, а также для того, чтобы отслеживать все возможные осложнения, – пояснил министр здравоохране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ладимир Кузнецов.

Медсестра поликлиники №4 Дарья Ашихмина, которая одной из первых на Сахалине сделала прививку от COVID-19, считает, что вакцинация очень важна.

– Чтобы не болеть, надо прививаться. Болезнь сложная, прививка может защитить от самого неблагоприятного исхода, – отметила девушка.

Ее коллега Валентина Сабынич сейчас работает в инфекционном отделении областного кожного диспансера.

– Я постоянно в контакте с больными. Через меня каждый день проходит до 50 человек, при этом не хочу болеть сама, но хочу нести инфекцию домой, поэтому я за прививку. Рекомендую сахалинцам вакцинироваться, чтобы не болеть и не сидеть в режиме самоизоляции, – поделилась Валентина Сабынич.

Молодого специалиста поддерживает врач Вагиз Загидулин.

– Я верю в вакцинацию, как метод. Только она спасла мир от таких страшных инфекций как дифтерия, коклюш, столбняк. Думаю, на данный момент только вакцина избавит нас от пандемии. Распространение инфекции можно будет остановить, когда в социуме образуется коллективный иммунитет. Опыт коллег показывает, что вакцина в целом безопасна, – сказал врач.

По данным специалистов, для создания иммунной прослойки на островах необходимо привить около 30 процентов всех жителей.

На Сахалине пациенты после коронавирусной инфекции проходят реабилитацию в санатории

С 1 сентября в островном регионе действует специальная медицинская программа для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в тяжелой форме переболели COVID-19. Оказать им всю необходимую помощь ранее поручил губернатор Валерий Лимаренко. Реабилитация проходит в санатории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и выстраивается с учетом осложнений после инфекции.

Елена Колесникова всю жизнь на передовой: работала фельдшером скорой помощи сначала в Охе, последние годы –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Когда началась пандемия, опытный специалист вошла в специализированную «ковидную» бригаду – выезжала к пациентам с симптомами ОРВИ. А в октябре тяжело заболела сама. Чтобы окончательно восстановиться, понадобилось дополнительное лечение.

– Первое время трудно было даже до второго этажа подняться. Испытывала трудности с дыханием. Одышка, конечно, еще сохраняется. Но в целом после процедуры стало значительно легче, – поделилась Елена Колесникова.

Реабилитационный курс в санатории «Синегорские минеральные воды» проходит в режиме дневного стационара в течение 12 дней.

– Программа подбирается индивидуально, учитывается анамнез пациента, так как люди по-разному переносят заболевание. Направление на реабилитацию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в поликлинике у лечащего врача. Специалист должен определить показания с учетом текущего состояния пациента, – поясн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санатория Алексей Пешков.

Специалисты отмечают: результаты реабилитации видны уже к концу первой недели. Снижается одышка, проходит усталость, которая мешает при повседневной активности.

– При развитии фиброза легких пациенты получают магнитотерапию, лазеротерапию. Массаж, ингаляции, кислородные коктейли, минеральная вода, соляная комната, бассейн, дыхательная гимнастика, скандинавская ходьба – все это позволяет ускорить процесс реабилитации после болезни и восстановления организма, – рассказала врач-терапевт Вера Тимошенко.

Начиная с сентября, курс в санатории прошли 50 человек, 17 островитян продолжают восстановительное лечение. Общие рекомендации для пациентов, которые перенесли коронавирусную инфекцию, включают соблюдение режима труда и отдыха, прогулки на свежем воздухе, употребление витаминов.

Определен состав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ого сахалинского акселератора

Эксперты отобрали наиболее готовые к практическому использованию в регионе отечественные цифровые разработки. Теперь их создателям помогут доработать техническую документацию, в том числе и в контакте с потенциальными заказчиками из числа островных предприятий. «Акселератор 101» – проект, который «Корпорация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реализует по поручению регионального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овместно с Дальневосточным фондом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в рамках национальной программы «Цифровая экономика РФ».

В интересах развития ключевых отраслей экономики региона островные власти предложили отечественным создателям инновационных продуктов помощь в выходе на рынок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На конкурс поступило 20 заявок от компаний и частных лиц из Москвы и Санкт-Петербурга, Новосибирска, Республики Саха (Якутия). В основном они ориентированы на нефтегазовую отрасль, сельское хозяйство, строительство и сферу морских изысканий.

– В отборе проектов в качестве экспертов участвовали представители государственных корпораций «Ростех», «ОДК Сатурн» и «Росатом», а также Дальневосточного фонда высоких технологий, – сказа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Вячеслав Аленков. – Они очень высоко оценили представленные разработки и определили три российские компании. Их проекты мы будем готовить к внедрению в регионе.

– Через несколько месяцев, получив первый опыт, мы начнем новый набор участников акселерационной программы, – сказа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дрей Медведев. – Компании, которые сегодня не прошли, получают предложения подать заявки. Их разработку и творческий потенциал необходимо развивать на Сахалине и Курилах.

Одобрение со стороны экспертов при отборе участников первого акселератора получила компания «BioGeoHab». Ее команда разработала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позволяющее быстро и с минимальными затратами оценить состояние водных биоресурсов на участке морского или речного дна, в автоматическом режиме составить карту подводных ландшафтов. «UVL Robotics» создает сервис для доставки компактных грузов беспилотными летательными аппаратами. Он уже был успешно испытан для доставки почты в условиях пустыни. В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истема может применяться для поддержки работ на шельфе, а также срочной перевозки медикаментов.

Компания «Астуслэнд» разработала программное обеспечение, которое будет востребовано при проведении проектирования и кадастровых работ. Оно позволяет на основе данных беспилотных летательных аппаратов автоматически определять охранные зоны.

– От участи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акселераторе мы ожидаем знакомства с интересными людьми, новых интересных заказчиков, – отметил представитель компании «Астуслэнд» Дмитрий Картушин. – Важен свежий взгляд на наш продукт и способы его продвижения и монетизации, а также возможность преодолеть административные барьеры для выхода на новые рынки.

Следующий набор в акселератор будет объявлен весной 2021 года. Более подробную информацию о программе «Акселератор 101» можно получить по ссылке: <http://accelerator.korps.ru/>

Сахалинско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и ИнфраВЭБ заключили соглашение о развитии туризма на Итуруп

В рамках дня открытых дверей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для инвесторов в Москве правительство островного региона, ИнфраВЭБ (группа ВЭБ.РФ) и ООО «Васта Дискавери» подписали соглашение о намерениях по сотрудничеству в целях реализации туристского инвестиционного проекта «Итуруп Резорт». Стороны также договорились о создании новых рабочих мест и развитии сферы услуг как части экономики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Проект включает строительство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комплекса рядом с рекой Кипящей со средствами размещения на 700 номеров уровня сервиса от 3 до 5 звезд, гор-

ножного комплекса (13 километров трасс, 2 канатные дороги) и гольф-поля.

– Дл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этот инвестиционный проект является очень важным. Это первый комплексный план развития туристического потенциала Курильских островов. Этот кластер станет драйвером развития туризма в целом в нашем регионе. А поддержка и участие такого сильного, надежного партнера в лице АО «ВЭБ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ускорит реализацию проекта, – отметил заместитель председателя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тон Зайцев.

Основой для реализации проекта станут частные инвестиции. В рамках комплексного развития территории планируется также обеспечить создание на Итурупе инженерной инфраструктуры и порта, а также своевременное увеличение мощности аэропорта пропорционально увеличению турпотока.

– Туризм является одним из приоритетных направлений для ВЭБ.РФ и вносит значительный вклад в социально-экономическое развитие субъектов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За последние два года, а также с учетом противоэпидемических ограничени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рынок России демонстрирует уверенный потенциал роста. И поскольку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ь обладает неоспоримыми географическими и природно-ресурсными преимуществами, реализация проекта позволит создать качественный туристический продукт и привлечь в регион дополнительный поток российских и иностранных туристов, – отметил генеральный директор ИнфраВЭБ Денис Ноздрачев.

В соответствии с подписанным соглашением ИнфраВЭБ разработает инвестиционную презентацию проекта «Итуруп Резорт», осуществит поиск и привлечение потенциальных инвесторов, а также выполнит организационно-правовое и экономическое консультирование по проекту. Подготовку эскизной документации и маркетинговое исследование проведет компания «Васта Дискавери». Общая стоимость проекта оценивается в сумму более 20 миллиардов рублей.

АО «ВЭБ Инфраструктура» (ИнфраВЭБ) является дочерним обществ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й корпорации развития «ВЭБ.РФ». Целью ее деятельности является обеспечение запуска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подготовка и организация их финансирования. ИнфраВЭБ отдает предпочтение проектам, реализация которых позволяет достичь целей, определенных Указом Президента Владимира Путина «О национальных целях развития Российской Федерации на период до 2030 года».

ООО «Васта Дискавери» – российская девелоперская управляющая компания, занимающаяся проектированием, разработкой и управлением знаковыми туристическими проектами. Компания участвовала в реализации многих знаковых инвестиционных проектов – например, курорты «Завидово» в Тверской области, «Ярославское взморье» в Ярославской области, «Роза Хутор» в Сочи.

На Сахалине начали открывать дополнительные вечерние группы для детей медработников

В детском саду «Сказка» Корсакова первыми поддержали всероссийскую акцию «МыВместе» и захотели помочь сотрудникам медицинских учреждений, которые вынуждены работать в вечернее время.

Родители юных сахалинцев из вечерней группы уже оценили пользу нововведения.

– Четыре дня в неделю я принимаю пациентов до 19 часов и часто задерживаюсь. Из сада детей нужно забрать до 18 часов. Сейчас открыли дежурную группу, за что я очень благодарна. Теперь я могу спокойно закончить рабочий день, не переживая, что ребенка нужно куда-то пристроить, – рассказала медицинская сестра поликлиники при Корсаковской ЦРБ Сайбыраана Теспижек.

– Понимаем, насколько сложно медикам в условиях пандемии, поэтому наш детский сад оперативно создал дежурную группу. Не исключено, что ребят там в скором времени станет больше, – отметила заведующая детским садом №1 «Сказка» Яна Артёменко.

Помимо Корсакова, потребность в организации дежурных групп при детских садах появилась в Южно-Сахалинске, Аниве и Невельске.

– Фактическая потребность меняется каждый день, потому что она зависит от графика работы врачей, и мы к этому готовы. Дополнительно уже сейчас формируется план по работе дежурных групп в новогодние праздники, а также по мероприятиям для младших школьников. Данная услуга бесплатная для врачей, а для воспитателей сохраняется оплата труда. Этот вопрос решается за счет средств регионального бюджета, – рассказала министр образования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Анастасия Киктева.

Чтобы включить ребенка в список дежурной группы, медработнику необходимо написать заявление на имя руководителя. Сведения отправят в региональное министерство образования, где оперативно решится вопрос об устройстве ребенка.

Добавим, что акция «МыВместе» во всех регионах России объединила людей, которые хотят помочь тем, кто оказался в сложной ситуации в период пандемии. Волонтеры доставляют продукты и лекарства, психологи и юристы дают бесплатные консультации, предприниматели помогают товарами и услугами.

(По материалам пресс-службы
Правительства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러 부총리, 사할린의 코로나19 사태 파악

(3면의 계속)

11월에는 응급 검진 키트를 1만 개 구입, 11월13일부터 4520 회 검진이 실시되었다. 최근에 1만개의 응급 검진 키트를 구입했다. 사할린주 위생방역과 과장인 올라 폰투소와 의사의 말에 따르면 '사할린 위생방역센터'에서 진행되는 1일 검사 횟수는 수백 회까지 증가하고 있는 가운데 추가 연구소 개설을 요구했다.

코로나19 검진 연구소 개설은 포르나이스크, 스미르니흐스크, 마카롭스크 구역(1일 100건 검진)을 계획하고 있다. 오하 구역에서는 코로나 19 검진 방법으로 근전도 검사(EMG)연구소를 통해 확진 사실을 밝히고 있다.(1일 80회 검진)

알레리 리마렌코 사할린주지사는 "사할린 지역에는 의료장비, 의료진, 구급차가 충분히 구비돼 있다. 현재 주민들의 감염 위험을 막기 위해 백신 접종 캠페인을 벌이고 있고 백신은 쿠릴열도와 북쪽, 벽지에도 공급될 것이다."라고 밝혔다.

주에서는 24개의 컴퓨터 단층촬영기(국립 의료기관 23대, 개별1대) 운영되고 있으며, 19대의 CT 촬영기가 있어 2020년 3월부터 흉부조각 검사로 10만 건이 이뤄졌다.

러시아 연방 대통령의 지시를 집행하는 일환으로 의료진과 의료 종사자들에게 수당이 지급되는데 연방 및 지역 예산에서 총 9억2천 140만 루블리가 배당돼 의사 1천238명, 간호인력 3천109명, 의료계 하급직원 862명, 코로나19와 투쟁하는 다른 인력 729명에게 지급된다.

주 보건부는 연방 정부의 예비비 기금 1천840만루블리로 항바이러스 약물 공급을 위해 국가적 계약을 체결했다. 이 약품은 외래 환자 2천333명에게 공급할 예정이다. 추가적으로 지역 예산에서

는 자택에서 코로나19 치료를 받는 환자들을 위한 약품 구입으로 850만 루블리가 책정되었다.

이러한 작업들은 정부 차원의 계약 체결로 시행되고 있다. 사할린주 내에는 의료 구급대 252팀이 역할을 다하고 있고 이중 89팀은 코로나19 환자와 함께 작업을 위한 특화된 구급대이다. 보건소에는 52개 응급실이 운영되고 있고 보건소의 의사 호출의 최대 대기 시간은 12시간이다.

전염병원에서 2주간 작업으로 제조된 약품은 신속한 공급을 위해 항바이러스, 항균 제조사와 계획된 작업이 진행 중인데 약품의 인증 마크 부착으로 배송이 지연되고 있다. 국립 약국망에서는 2주간의 유통시킬 만큼의 약품이 확보돼 있다.

현재 약품 시장에는 약품이 부족해 이를 요청하고 있으며, 컴퓨터 단층 촬영도 과도하게 사용되고 있고, 확진자를 위한 특별 전담 병원은 없는 실태다.

블라디미르 쿠즈네초브는 러시아 국방부가 건설하고 있는 새로운 병원이 운영될지 바란다고 밝혔다.

우리 트루트네브는 회의를 결론지으며 사할린의 연방 감독청장에게 쿠릴열도에서 검진이 제때 이뤄지고 있는지, 의료지원의 품질, 보건시스템기관에서 의료 장비와 약품 현황을 점검하라고 지시하고 "유즈노사할린스크에서만 아니라 산간 벽지의 사태 현황을 검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부총리는 블라디보스토크에서 극동 전 지역 연방 감독청장들과 만남이 계획된 가운데 극동지역의 코로나19 감염 현 상황을 포함해 전 분야에서 그들과 회담을 하겠다고 밝혔다.

[우리말로 깨닫다]

가을가을하다

'가을가을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없는 말입니다. '가을하다'라는 말은 사전에 있는데 '벼나 보리 따위의 농작물을 거두어들이다.'라는 뜻입니다. 가을이 추수를 하는 계절이니 알맞게 만든 말로 보입니다. 느낌이 참 좋은 말입니다. 내친김에 봄, 여름, 겨울도 찾아보았습니다. 뒤에 하다가 붙어서 단어를 이루는 경우는 없었습니다. 가을이라고 하면 추수가 생각나는 데 비해서 다른 계절은 금방 떠오르는 느낌이 없어서였을까요?



▲ 조현용 (경희대 교수, 한국어교육 전공)

우리말에서 여름이라는 단어는 원래 농사와 관계가 있었습니다. 옛말에 '너름'이라는 말이 여름(夏)의 뜻이었는데, '너름 짓다'는 농사를 짓는다는 의미였습니다. 여름을 잘 만드는 것이 농사이고 가을을 하는 것이 추수라는 생각이 드니 계절의 느낌이 더 잘 다가옵니다. 그런 의미에서라면 봄은 씨를 뿌리는 계절이라는 생각이 들고, 겨울은 한 해를 마무리하고 준비하는 시간이라는 생각이 듭니다. 봄과 겨울에도 그에 맞는 단어가 만들어지면 좋겠습니다.

말에도 생로병사가 있습니다. 이미 너름 짓다라는 말을 사용하지 않는 것처럼 말은 태어나서 사라지기도 합니다. 어떤 말은 잘 사용하지 않기도 하고, 잘못 쓰이기도 합니다. 늙기도 하고, 병이 들기도 한다는 의미겠죠. 어떤 사람은 잘 쓰이지 않는 말을 찾아 써야 한다고 이야기하고, 어떤 사람은 잘못 쓰는 말에 대해 개탄하기도 하지만 어찌 보면 그게 말의 숙명이요, 생애이기도 합니다.

한편 말이 새로 생겨나는 것에 대해서도 못마땅해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요즘 아이들이 말을 함부로 만들어 낸다고 걱정하기도 합니다. 말에는 권위가 있어야 한다는 생각을 하는 겁니다. 잘못된 표현이나 새로운 표현이 사고에도 영향을 미친다고 보는 생각입니다. 하지만 말은 늘 새로 생겨납니다. 막을 수가 없습니다. 막을 수 없다면 이왕이면 좋은 표현이 많이 생기면 좋겠다는 기대를 해 봅니다.

우리말에서 같은 말을 반복해서 만들어진 단어를 첩어(疊語)라고 합니다. 첩어는 기본적으로 반복을 의미하기에 여러 개라는 뜻을 나타냅니다. 대표적으로 '집집마다'와 같은 표현이 있을 겁니다. 다음으로는 반복적인 행위를 나타내기도 합니다. 의태어가 대표적인데 엉금엉금, 살금살금, 아장아장 등은 모두 반복적인 느낌을 보여줍니다. 한 발짝, 한 발짝 걸음을 떼는 모습이 떠오릅니다. 우리 말에는 첩어가 무척이나 발달하였습니다. 리듬감을 살리는 표현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말이 반복되면 강조의 의미가 되기도 합니다. 하나보다는 여러 번 반복하여 말하는 것이 느낌을 더 잘 나타낸다는 생각이었을 겁니다. '야들야들'의 느낌은 어떤가요? 특히 부사의 경우에는 반복을 하면 강조가 됩니다. '더욱'과 '더 더욱'의 느낌을 비교해 보면 알 수 있습니다. 반복을 하면 느낌이 더 선명해집니다. 최근에 새로 생기는 말에 이런 첩어가 많아서 재미있습니다. 말장난처럼 보인데, 사람들이 즐겨워합니다. 하긴 장난은 즐거운 것이죠. 이왕이면 장난 때문에 다치는 사람은 없었으면 좋겠습니다. 말장난도 때로 상처가 되니 즐거운 말장난을 기대해 봅니다. 시간이 지나면 이런 표현도 사전 속으로 들어갈 수도 있습니다.

'가을가을하다'라는 말도 사전에는 없는 말이지만 쓰는 사람이 늘고 있습니다. 가을이 깊어지면서 가을의 느낌이 물씬 날 때 이런 표현을 씁니다. 가을이 두 번 쓰이니 가을 느낌이 무르익습니다. 노란 은행잎, 붉은 단풍, 가을 색을 담은 빛나무 이파리가 가을빛을 담고 있습니다. 푸르고 맑은 하늘빛도 떠오르네요. '하늘하늘'이라는 단어는 하늘과는 관계가 없어 보이는데도 웬지 하늘의 느낌이 나서 좋습니다. 요즘 날씨가 그렇습니다. 가을이 깊어갑니다. 여러 가지로 힘든 봄, 여름을 지나고 이 계절도 무척이나 힘겹게 지내고 있습니다만, 가을을 느껴 보시고 새 힘을 얻으시기 바랍니다. 요즘 날씨가 참 가을가을하네요.

(출처: 재외동포신문)

카잔연방대 주최 '한국어 올림피아드' 비대면 방식으로 열려

한국어로 에세이 쓰기 및 말하기 부문으로 나눠 진행.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 카잔에 소재한 카잔연방대학교가 주최하고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와 CIS한국교육문화학교협의회 주관하는 '제12회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12월 5일 화상회의 앱 줌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러시아·CIS지역 중고생과 대학생을 대상으로 한 이번 대회는 모스크바, 상트페테르부르크, 카잔, 예카테린부르크, 스페르들롭스크주, 바쉬코르스탄공화국, 크라스노야르스크, 로스토브나도누, 페름, 노보시비르스크, 보로네즈, 우즈베키스탄, 카자흐스탄 등지에서 참가한 학생들이 에세이 쓰기 부문 40명과 말하기 부문 43명으로 나눠 진행됐다.

에세이 쓰기 부문은 중고등부는 '한국의 좋은 것과 나쁜 것', 대학부는 '한국에 대한 이미지: 긍정적인 것과 부정적인 것'을 주제로 40분 동안 한국어로 작성 후 5분 이내에 이메일로 제출하는 방식으로 진행됐고, 말하기 부문은 '한국에 관한 자유 주제'로 중고생은 5분, 대학생은 7분 동안 발표하도록 했다.

에세이 부문에서 중고등부 1등은 모스크바 №17학교 10학년 박설연 학생이, 대학부 1등은 노보시비르스크 국립대학교 3학년 수사코바 마리아 씨에게 돌아갔다.

말하기 부문 중고등부 1등은 '상호작용 학습을 통해 학생들의 동기부여를 향상시키기'란 제목으로 발표한 모스크바 17학교 11학년 박 예카테리나 학생, 대학부 1등은 '한국문화란 제목으로 발표



러시아 타타르스탄 자치공화국의 수도 카잔에 소재한 카잔연방대학교가 주최하고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와 CIS한국교육문화학교협의회 주관하는 '제12회 한국어 올림피아드'가 12월 5일 화상회의 앱을 통해 온라인으로 개최됐다. (사진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

한 카자흐스탄 악토베지역대학교 2학년 트레우오바 아셀 씨가 차지했다. 말하기 대회 대학부 1,2,3등에게는 삼육보건대학교 3개월 한국어 무료 연수증과 상품이 수여됐다.

대회를 주관한 고영철 카잔연방대 한국학연구소장은 "이번 대회는 코로나19 상황에서 러시아와 CIS권의 한국어 학습자들에게 그동안의 한국어 학습 결과를 자랑할 기회를 제공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었다"고 전했다.

고 소장은 "특히 한국어 에세이 쓰기 대회에서는 참가자들은 한국의 긍정적인 점으로 ▲경제·IT기술 발전 ▲Wi-Fi 무료 ▲케이팝·음식·화장품 ▲높은 교육·의료 수준 ▲안전하고 청결한 나라 ▲자연경관 등 관광지 발달 ▲노인 존중 및 정이 있는 민족 등을 꼽았으며, 부정적인 점으로 ▲전임대통령들의 부정부패 ▲높은 자살율 ▲외모 중시 사회 분위기 ▲대기오염·미세먼지 ▲대도시의 과도한 임대료 ▲고등학교 과정의 심한 경쟁과 휴식 없는 삶 ▲단일 한민족주의 등에 대해 서술해 시사하는 바가 많았다"고 덧붙였다.

(출처: 재외동포신문)

재외동포재단 이사장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총회장 접견

재미동포 차세대 정체성 교육 및 한글학교 발전 방안 논의



김성곤 이사장은 12.4(금) 재미한국학교협의회(NAKS) 김선미 총회장을 접견하여 재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 및 한글학교 현황 등에 관해 의견을 교환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코로나19 등 어려운 환경과 여건 속에서 재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에 앞장서서 헌신과 봉사로 일하시는 재미한국학교협의회 및 한글학교 선생님들의 노고에 감사의 인사를 전했다.

김선미 총회장은 다가오는 2021년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창립 40주년으로, 현재 14개 지역협의회 및 약 1,000여개 한글학교로 발전하였으며, 한글학교 교사의 역량 확대 및 표준화된 교육 등의 중점사업을 통하여 우리 자녀들의 정체성 교육에 매진하고 있음을 설명하고, 재외동포재단과의 긴밀한 협력관계 유지와 지속적인 지원을 희망했다.

김성곤 이사장은 재미한국학교협의회 창립 40주년을 축하하고, 앞으로 협의회가 우리 자녀들의 한국어 교육은 물론 한민족의 건국 이념인 '홍익인간'의 정신을 바탕으로 재미동포 차세대의 정체성 교육과 한글학교 발전에 큰 역할을 해 달라고 당부했다.

(재외동포재단 제공)

이 모 저 모

(2면의 계속)

Частную коллекцию предоставила почетный гражданин Южно-Сахалинска, заслуженный учитель РФ и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преподаватель политехнического колледжа, отличник профтехобразования, заслуженный экскурсовод области, лауреат конкурса "Женщина года — 2020" в номинации "Культура и духовность" Галина Архипова.

Галина Иннокентьевна — заядлая путешественница. Ни одна поездка сахалинки не обходится без памятной национальной куклы или просто интересной или необычной модели. Коллекционер побывала более чем в 150 странах. В 2010 году в возрасте 68 лет женщина поднялась на Гималаи, став одним из покорителей горы Аннапурны (8091 м). А в марте 2014 года — совершила путешествие в Антарктиду.

За двадцать лет такого увлечения, в коллекции Галины Иннокентьевны собралось порядка 300 кукол — со своей историей, характером, особенностями.

Галина Архипова — автор тринадцати книг, среди которых "Исследователи Дальнего Востока (ботаника)", "Легенды Сахалина" и "Легенды залива Анива". В 2020 году вышел в свет информационный справочник "Корсаков и Корсаковский городской округ: история в лицах и фактах", который будет интересен широкому кругу читателей. Познакомиться с творчеством Галины Архиповой можно будет в течение двух месяцев — декабре и январе, сообщает пресс-служба корсаковской администрации.

'재능' 청소년 창작 축제 сахалин에서 개최

'재능' 제 17회 청년 창작 축제가 12월10일부터 13일까지 сахалин 국립

대학교에서 개최된다. 전통적으로 축제 참가자들은 '뮤지컬', '댄스', '연극' 및 '특수 장르', '연론', '아트 - 공간' 등 5개 방면에서 경쟁을 하게 된다.

이번에는 방역 안전 지침을 따라 처음으로 관객 없이 축제를 진행한다. 예술 단체와 개별 출연자들이 축제에 참가하며 경연 테스트는 전공 및 비전공 2개 영역으로 나누어 진행한다.

참가자들은 연령별로 4개 그룹 - 7세 - 14세, 15세 - 30세, 31세 - 50세, 51세 이상 - 으로 나뉜다.

'재능' 청소년 창작 축제는 '청소년 모듈(독립적 영역의 역할) 학교'의 일환으로 개최된다.

이 기획은 연방 청년사업청이 진행하는 고등교육기관들 간 전국 청년기획 경연에서 우승한 바 있다고 сахалин 국립대학교 측이 전했다.

На Сахалине проходит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лант"

С 10 по 13 декабря в Сахалинском государственном университете в 17й раз пройдет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лант".

Впервые фестиваль проходит без зрителей. Это вызвано мерами безопасности.

В фестивале принимают участие творческие коллективы и отдельные исполнители, а конкурсные испытания проходят по двум категориям: любители и профессионалы. Возрастные группы участников разделены на 4 категории: от 7 до 14 лет, от 15 до 30 лет, от 31 до 50 лет, от 51 и старше.

Фестиваль молодежного творчества "Талант" проходит в рамках "Молодежной модульной школы", сообщает СахГУ.

(сахалин주 언론기관 자료에서)

Выражаем глубокое соболезнование родным и близким по поводу безвременной кончины председателя ООСК г.Кимпхо Тонгдинып Ким Анатолия Хановича(Ким Гир Ун).Скорбим и помним! Вечная память в сердцах членов общества!

Общество сахалинских корейцев г. Кимпхо Тонгдинып

김포 통진읍 сахалин영주귀국자회 김길운 회장이 2020년 12월 8일 향년 77세를 일기로 증병으로 별세하셨다는 사실을 전하고 비애에 잠긴 유가족들에게 심심한 애도의 뜻을 전합니다.

김포 통진읍 сахалин영주귀국자회 회원 일동

광고-광고

새고려 신문사는 독자 여러분이 신문에 신고자 하시는 광고나 생일 또는 여러 축하문을 접수합니다. 접수 방법은 전화: 43-59-80, 43-72-94. 이메일 : vika131065@mail.ru, skr@sakhalin.ru 로 연락 바랍니다.

SAKH.COM • БИЛЕТЫ

КИНО

ТЕАТР

КОНЦЕРТЫ

Ваш портал в мир развлечений!

Вы можете купить билеты

на сайте bilet.sakh.com

в приложении [билет.sakh.com](http://bilet.sakh.com)

Загрузите в Google play

Загрузите в App Store

Реклама

<p>Редакция не несет ответственности за содержание объявлений и рекламных материалов. Рукописи не рецензируются и не возвращаются. Мнение редакции не всегда совпадает с мнением авторов.</p>				<p>광고의 내용에 대해서 신문사가 책임을 지지 않음.</p>	
<p>Издатель: АНО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Новая корейская газета")</p> <p>Гл. редактор Бя В.И. 사장(주필) 배 옥토리아</p>	<p>Учредители газеты: автономная некоммерческая организация «Редакция газеты «Сэ корё синмун», Правительств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p>	<p>Адрес издателя и редакции: 693020 г.Южно-Сахалинск, ул. Чехова, 37 Телефон/факс: 43-59-80, 43-72-94, 43-67-85 E-mail: skr@sakhalin.ru http://cafe.naver.com/sekoreasinmun.</p>	<p>Отпечатано в ОАО «Сахалинская областная типография», ул. Дзержинского, 34 Время подписания в печать: По графику - четверг 16-00 Фактически - четверг 21-00</p>	<p>Издаётся с 1 июня 1949года. Выходит по пятницам 50 раз в год. Индекс ПР575 Тираж 1300 экз.</p>	<p>Газета зарегистрирована Управлением Федеральной службы по надзору в сфере связи, информационных технологий и массовых коммуникаций по Сахалинской области. Свидетельство о регистрации СМИ ПИ № ТУ65-096 от 22 сентября 2011 г.</p>